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 발행일 : 2005년 2월 | 발행인 : 강순범 |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 TEL : (02)2072-3698 | FAX : (02)762-3599 | www.ksgoc.or.kr | E-mail : kjwksk@snu.ac.kr

회원여러분께,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이 가고, 희망찬 2005년 을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에게 풍성한 기쁨과 건강 속에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가을 제가 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학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몇가지 저의 계획 및 포부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11월로 예정인 20차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20년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부인종양학 분야의 괄목할 성장과 여러 선배님들, 회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역사가 이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올해부터는 일방적인 외국 학자의 초청에서 벗어나 국내 연구자가 외국 학회의 연자로 초청될 수 있도록 외국 부인종양학회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자, 내과종양학자, 방사선종양학자, 임상간호사, 중앙전문간호사, 환자 모임에도 우리 학회와의 참석을 유도하여 관심있는 연구자 모두 모이는 학회로 만들고, 해부병리학회, 방사선 종양학회 일정을 회원 여러분에게 공지하여 타학회 참가를 유도하여 교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지에 관하여 질적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평가에 대처하고, 학술재단 등재 학술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 발맞추어, 학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영문판 홈페이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양학 분야의 최신 정보를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접할 수 있도록 학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향후 2~3년간의 학회 일정을 미리 공지해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가 국내용 학회가



아니라 국제적인 학회로 거듭나는 데 큰 공헌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초록 접수 마감일 등의 정보를 공지하고, "young investigator travel award"의 신설 등을 통하여,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국제부인암학회 발표를 지원할 것이며, 소식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교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학회 사무실을 고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인종양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관공동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동일한수준의 임상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quality control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기관공동 임상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quality control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을 갖춘 부인종양학 전공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결국 분과전문의 제도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현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외국 임상시험 그룹과의 제휴를 통한 경험의 축적, 신뢰 획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부인종양연구회(GOG)의 장단과의 교류를 통해 현재 GOG에서 수행 중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OG 이외에도 유럽임상연구그룹(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for Cancer, EORTC) 에도 접촉 중이고 세계부인암연구그룹협의회(Gynecologic Cancer Inter Group, GCIG) 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KGOG의 인적 구성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다수의 부인종양학자 이외에 적어도 생통계학자, 방사선종양학자, 내과종양학자, 자료수집 및 전산처리시스템 담당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KGOG용 중앙실험실, 중앙조직보관은행의 설립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복지부 연구지원책과 연계하여 부인종양연구회(KGOG)의 물적, 인적 토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의 '성인고형암 치료 임상연구센터'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부인암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기관의 자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인암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 홍보 및 정책 담당자와의 학술토론 등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에 도달하는 데에는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는 것의 끝에 노력의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2004년을 보내고 대망의 2005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저희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미래는 항상 밝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임기 동안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 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올 한 해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강순범

# 제 10차 추계심포지움 참가 후기

주 응

서울대학교병원

지난 11월 12일 금요일 가톨릭의과대학연구원에서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 10차 추계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고 풍성한 연재들로 구성된 금번 추계 심포지움은 교육 및 연구, 진료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당일 참가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더 늦기 전에 기록을 더듬어 본다.



다음 연자로 나선 계명의 대 조치흠 교수는 CRF(Case Report Form)의 작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는데, CRF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형식, CRF 기록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 CRF 검토, 분석 시의 유의사항 등을 차근차근 짚어 나갔다. 이어 서울의대 김재원 교수는 임상시험

의 모니터링과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임상시험의 수행에 있어 질관리(QC, Quality control) 및 질보증(QA, 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에 있어 모니터링이 갖는 중대성, 모니터링의 실제와 점검의 실무에 대해 강연한 후 KGCP(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관리기준) 총칙 및 세부규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연세의대 김재훈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KGOG의 임상시험을 소개했다. 재발 고위험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KGOG-1001 및 진행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KGOG-3001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1부는 KGOG(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대한부인종양연구회) Education Session였다. 이미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알려진 대로 임상시험(Clinical Trial)에 관한 연재들이 강연되었는데, 임상시험 Workshop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고 체계적인 강의가 이어졌다. 임상시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KGOG의 Member로 구성된 연자들이 개념부터 임상 적용까지 차근차근 설명 해 주었다.

첫번째 연자인 이화의대 김승철 교수는 Protocol development 와 biostatistics를 강의하였는데, 의학연구방법론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 한 후 실제 임상시험의 설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대상규모(Sample size) 산출과 무작위법(Randomization)에 대해 방대한 자료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나갔다.

두번째 연자인 성균관대의대 김병기 교수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진들을 같이 엮은 입체적인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연구 계획단계에서의 무작위 배정, 위약군, 비밀보장, 환자 선정 등 고려해야 할 점들과 연구 수행단계에서의 피험자 동의, 중간결과 분석, 책임감 등 간과하기 쉬운 윤리상의 원칙들을 강조하였다.

제2부는 Nutritional Support and Gynecologic Cancer 라는 제목의 Session으로 학회 외부의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랐다. 먼저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의 김미경 책임연구원이 부인암의 영양학적 역학(Nutritional Epidemiology)에 대해 강연하였는데, 부인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신선한 야채와 비타민의 섭취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특히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나물류, 즉 익힌 야채보다는 생 야채(Raw vegetable)의 효과가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대 약대의 신완균교수가 부인암 환자의 영양에 대해 강의했다. 신교

## CONTENTS

2005. 2. 제 1호

2 제 10차 추계심포지움 참가 후기

4 IGCS 참가기

6 GCIG 참가 후기

7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의 치료 후 HPV 검사

9 교실탐방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 부인종양학 분야)

11 해외연수기 독일 DKFZ 연수를 마치고

13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14 국내외 주요 학회 일정

15 회무보고

## 학회 홈페이지 안내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ksgoc.or.kr로 접속 하신 후

1. 신규회원인 경우 신규가입란의 안내에 따라 신규가입
2. 기존회원인 경우 ID와 password를 입력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회 소식 및 학회지 논문 검색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라며, 기타문의는 학회 사무국(02-2072-3698)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는 종양자체로 인한 악액질(Cachexia)로 야기되는 영양 결핍, 수술 및 항암치료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및 대사 변화의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부인암 환자의 영양관리가 보다 더 엄격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점심 식사 후 Special session에서는 울산의대 김영탁 교수와 연세의대 김영태 교수가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를 집적(集積)한, 짧지만 알찬 강의를 하였다.

먼저 김영탁 교수가 2004년도에 개최된 부인암 분야의 주요학회와 주요 agenda를 소개하고 아울러 2005년 학회일정과 초록 마감일을 상기시켜 주어 여러 회원들이 지속적인 연구에의 의지를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김영태 교수는 현재 구미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임상시험에 대해서 정리 발표 하였는데 특히 재발성, 불응성 난소암에 있어 Paclitaxel의 매주요법(GOG 126)과 여기에 Celecoxib가 포함된 치료법(GOG 126-P), 조기병기의 난소암에서 3회 항암요법과 6회 항암요법의 비교(GOG 157) 등에 관심이 모아져 여러 문답이 오갔다.

제3부에서는 Progress and Controversies라는 제목으로 학계의 합의(consensus)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임상적 치료법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의 연재발표가 있었다.

먼저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앞선 거대 전이 림프절 절제의 의의에 대해 아주의대 유희석 선생님은 연재 발표를 통해 영상진단을 통해 진단된 거대 전이 림프절을 방사선 치료 전에 절제함으로써 생존율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의대 이낙우 선생님은 림프절 전이의 진단율이 더 높아지고 림프절 감축으로 치료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적절한 환자군을 찾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할 때 까지는 개인적 취향과 신념에 의한 판단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인 난소암 치료의 지속요법(Maintenance therapy)에 대한 발표에서 조선의대 한세준 선생님은 항암 화학요법제, 호르몬, 면역치료, 천연물, 광역동 치료 등을 이용한 지속 요법의 여러가지 시도들을 소개하고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성균관의대 이기현 선생님은 몇몇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무

병생존의 연장이 전체생존의 개선을 대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표준요법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여성 암환자에 있어 에스트로젠 치료에 대해 가천의대 이종민 선생님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환자의 HRT(Hormone Replacement Therapy) 임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환자에게 HRT의 득실을 설명한 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가톨릭의대 김찬주 선생님은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 및 종양세포의 성장 촉진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와 여성암 발생의 역학적 자료들을 들어 여성암 환자에서 에스트로젠 치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연재 발표 후 이어진 지명토론에서도 찬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제3부를 끝으로 추계심포지움은 막을 내렸다.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2005년 제 11차 심포지움 개최 안내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는 2005년 제 11차 심포지움을  
4월 22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10th Biennial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參席記

유 희 석

亞州醫大

지난 10월 初 英國 Edinburgh에서 개최된 제 10차 IGCS에는 전 세계에서 약 천 오백 여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60 여명의 부인종양 관련 專門醫들이 참가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研究業績들에 대한 발표 및 교류가 있었다. 대부분이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참석자들이 口演 4 演題와 포스터 54 演題를 발표하였으며, 蔚山醫大의 남주현, 김영탁 교수는 각각 Scientific committee와 Nominat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업적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부인종양 분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대회라고 할 수 있겠다. 짧은 지면으로 방대한 학회 모든 것을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 일주일간의 旅程을 필자가 참석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날, 10월 2일 (土)

인천공항에서부터 10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으로 파김치가 된 우리 일행들이 London Heathrow airport에서 Edinburgh 로 가기위하여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日本에서 온 九州醫大의 Sugimori, Tsukamoto 교수, 久留米醫大의 Kamura 교수, 北里醫大의 Kuramoto 교수 등을 비롯한 많은 舊面의 IGCS 참석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약 두 시간의 비행으로 밤늦게 Edinburgh에 도착한 서울醫大의 이효표, 延世醫大의 김재욱, 蔚山醫大 목정은 교수님을 비롯한 필자 일행은 'A mile street' 에 위치한 Radison-sas Hotel에 旅裝을 풀었다. Hotel 外觀이 수백 년은 됴직해 보이는데 반하여 실내는 현대적이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지은 지 3



년 된 건물이며 Edinburgh에서는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도 中世風의 都市美觀에 맞추어 오래된 건물처럼 건축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날, 10월 3일 (日)

오전에는 학회 일정이 없었으므로 時差克服을 겸해서 우리는 시내관광에 나섰다.

Edinburgh는 Scotland의 首都로 많은 관광명소가 있었다.

우선 Edinburgh의 acropolis라고 할 수 있는 Calton Hill에 올라서 戰勝紀念塔을 비롯한 Greco-Roman 樣式의 여러 건축물들을 둘러보고 시내 이곳저곳을 내려다보며 주요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dinburgh 시내는 London보다도 더욱 古風스러웠고, 石炭을 燃料로 사용했던 영향으로 外觀이 검게 着色된 건물이 매우 많았다.

Calton Hill에서 내려와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필자가 소년시절 즐겨 읽었던 소설 '黑騎士' (Ivan Hoes)의 작가이자 Scotland의 文豪인 Sir Walter Scott Memorial, Scottish Gallery 등을 돌아보고 Edinburgh Castle에 올랐다. 몇 년 전 국내에 소개되었던 Mel Gibson 주연의 영화 "Brave Heart"의 실제인물이자 Scotland의 영웅인 'William Wallace'가 활약하였던 Edinburgh Castle에서 그와 관련된 많은 逸話를 들을 수 있었다.

오후 5시에는 학회장인 Edinburg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EICC)에서 Opening Ceremony 및 Reception에 참석하였다. 세계 각지로부터 온 舊面의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현지의 Glenalmond College 학생으로 이루어진 bagpipe 연주단의 試演은 우리가 Scotland에 와있음을 실감케 했다.

## 학회지 원고모집

1년에 4회(3, 6, 9, 12월)에 걸쳐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를 발간하고 있는바 원고를 항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원고의 종류 : 원저, 증례
- 원고접수시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도합3부)와 디스켓 제출요망 (online 접수 또는 학회 email로 보내셔도 됩니다)  
※학회지 논문 접수시 화일이 큰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www.kthard.com에 접속한다.  
2) ksgocmember (ID, PW 동일) 입력한다.  
3) 논문 화일을 올린다.  
4) 학회 email로 연락한다.  
단, 화일 크기는 199MB 이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인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 전화 : (02)2072-3698  
· 팩스 : (02)762-3599  
· E-mail : kjwks@snu.ac.kr  
· 원활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투고하시는 원고의 표지에 책임자의 1)주소 2)성명 3)전화번호 4)팩스번호 5)email을 기재해 주십시오.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제출하는 논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으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안내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해 회원님의 연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계좌번호로 연회비 20,000원을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고 입금 후 학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mail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계좌번호 : 조흥은행, 367-01-215752  
(예금주: 대한부인종양학회)

셋째 날, 10월 4일(月)

학회 첫째 날로 주로 난소암에 관한 일정이었다. 美國 MD Anderson의 Gershenson 교수 등은 Germ cell tumor management를 그리고 Medical oncologist 인 Ozol 교수 등은 상피성 난소 암 항암치료의 최신지견을 update하였다. 獨逸의 du Bois 교수 등은 지난 겨울 獨逸의 Baden Baden에서 열렸던 “Ovarian cancer consensus conference”의 결과를 review하여 주었다.

국내 연자로는 全南醫大의 최호선 교수가 “자궁경부 액상세포 검사법”에 관련 주제를 Selected poster presentation으로 口演하였고, 蔚山醫大의 김영탁 교수가 “Screening option”이란 제목으로 Cervical cancer in the developing world session에서 발표하였다.

저녁식사 후 전 IGCS 사무총장이었던 Hilgers 교수가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 와서 蔚山醫大의 남주현 교수와 같이 懷抱를 풀 수 있었다. 우리는 IGCS를 비롯한 부인암 분야에 대한 의견을 交換하였고, 특히 남교수와 필자는 금번 10차 IGCS 학회에서 9차 학회 開催國인 우리나라에 대한 配慮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開賑하였다.

넷째 날, 10월 5일(火)

부인암 분야에서의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에 대한 연제들로 이어진 하루로 Anti angiogenetic factor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서울醫大의 강순범 교수는 “PET scanning in gynecologic malignancy”란 제목으로 Opportunities in imaging with MRI & PET session에서, 가톨릭醫大의 박종섭 교수는 “Translational research on HPV infection and cervical cancer”를 HPV vaccine session에서 口演하였다.

필자는 “Postoperative adjuvant chemoradiotherapy for the high risk cervical cancer”를 포스터로 발표하였고, Norway의 Trope 교수와 필자의 日本 知人들인 Kuramoto, Umasaki, Fujii 교수 등이 관심을 표명하여, 質疑應答하고 交流하였다. 오후 마지막 시간에 개최된 General assembly of IGCS에서 남주현, 김영탁 교수는 각각 Scientific committee와 Nominat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발표 포스터 앞에서 장기홍 교수와 함께



▶ Stirling Castle에서 가톨릭醫大 박종섭, 成均館醫大 배덕수, 김병기 교수와 함께

다섯째 날,  
10월 6일(水)

Novel concept in radical surgery session 에서 日本의 Sakuragi 교수는 Nerve sparing radical hysterectomy를 그리고 獨逸 Leipzig의 Hókel 교수는 “Total Mesometrial Resection: applied embryology in gynecological surgical oncology”을 발표하여 큰 反響을 일으켰다.

특히 Hókel 교수의 “Total Mesometrial Resection”은 發生學的 개념을 도입하여 Radical hysterectomy의 수술 범위를 축소하는 劃期的인 내용이었지만,

필자가 만나본 많은 참석자들은 Micro-invasive cancer에서나 가능한 수술이라고 否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Scotland의 첫 번째 首都인 Stirling의 ‘The Castle’ 과 골프의 발생지로 유명한 St. Andrews의 ‘The Old Course’ 를 가 볼 수 있었다. 저녁에는 이번 meeting의 공식 banquet인 ‘Scottish evening’이 열렸다. 2년 전 서울 IGCS에서의 ‘Korean night’ 같은 근사한 banquet을 기대하였으나 snack 수준의 식사와 판에 박힌 듯한 bagpipe 연주에 실망한 필자의 생각은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문화의 차이 때문일까?

여섯째, 일곱째 날,  
10월 7일, 8일 (木, 金)

학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 오전 첫 Free communication session만 참석하고 버스로 London을 향해 출발하였다. 버스 안에서 英國에 대하여 該博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일행의 韓國인 현지 가이드로부터 英國 歷史와 地理에 대하여 많은 공부할 수 있었다. 우리는 New Castle을 거쳐서 England 中部지방인 Yorkshire의 州都인 York에 도착하여 英國 最古의 고딕식 건축물인 ‘York Minster’ 등을 관광 후 ‘Leeds’에서 一泊하고, 다음날에도 같은 버스로 Shakespeare 生家가 있는 Strad-upon-Avon을 거쳐서 London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학회사무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우 110-744)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 전 화 : (02)2072-3698
- 팩 스 : (02)762-3599
- Homepage : www.ksgoc.or.kr
- E-mail : kjwksh@snu.ac.kr

#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 GCIG 참가 후기



김영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2004년 10월 1-2일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GCIG에 KGOG(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의 강순범 회장의 요청으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참관기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부인종양 국제 연구 모임은 2002년 9월에 처음 결성되어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4년 6월 미국 뉴올리언스 회의에 서울대학의 김재원 교수가 처음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지난 회의는 IGCS Meeting에 맞추어 전통과 문화의 도시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다. 스코틀랜드는 골프, 스카치 위스키, 백파이프, 킬트 복장 등으로 연상되던 인상적인 나라이었지만 주도인 에딘버러 또한 고성, 은빛 물결이 현란한 호수, 백파이프, 천연의 장엄한 산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회의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40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5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일본은 2년 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연구 모임은 2002년 처음 결성될 때에는 난소암에서 adjuvant therapy의 방법들에 대한 소규모 협력 연구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다른 부인종양 분야에도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참가국도 20여 개국 이상으로 확산하게 되었다.

회의는 1일째에 주제별로 소 그룹 회의를 진행하여 가능한 합동 연구 프로토콜들을 제시하고 2일째에 각 소 그룹 위원장들이 주제 발표와 함께 전체 회의에서 최종

연구 제목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 그룹 별 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Radiation oncology
2. Early ovary
3. Screening/Prevention
4. Classification
5. Translation
6. Rare tumors

이 회의에서 채택된 프로토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초기 난소암에서 재발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환자 혈청 내의 proteomic 형태를 측정하는 연구 (Serum proteomic pattern of early stage ovarian cancer)로서 수술 전 환자 혈청을 채취 분석하여 수술 후 항암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예후 인자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이다. 혈청 proteomics에 대한 분석은 미국 국립암센터(NCI)에서 하며 각 국에서는 NCI로 조직과 혈청 샘플을 전송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자궁내막암, 외음부암 등에 대한 여러 임상 및 research 프로토콜들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프로토콜들에 GCIG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나 개별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며 프로토콜 시작 후 5년 기간 동안 참여가 없으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회원 (Provisional member)으로서 모든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향후 2년 간 회비 납부 및 참여 실적이 인정 되어야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현재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가 부인종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회이지만 주로 미국 및 북아메리카 위주로 운영되어 기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KGOG가 GOG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정회원국으로의 참여는 아직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GCIG와 같은 국제적 연구회에 적극 참여하여 프로토콜을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고 우리 부인종양 분야의 우수한 업적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의 후 리셉션 파티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할 기회도 가졌는데 연구 자체뿐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 회의에서 적극적인 인적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는 강순범 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이 지난 2년간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시켜온 KGOG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20년 학회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회에 아래자료가 없는바 자료를 가지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학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 결손자료

학술대회지 : 1, 2, 3, 5, 7차 학술대회지

학회지 : 1991년 전체, 1992년 전체, 1994년 6월호

정기총회 자료 : 1996년(11차), 1992년(7차) 이전자료

#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의 치료 후 HPV 검사

김승철

이화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CIN 치료 이후 재발률은 3~15%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양성 절제변연을 보이는 불완전 원추절제술 후 재발율은 평균 22%에 달한다. CIN-3로 원추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서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빈도는 1년에 1,000명당 1명으로 보고되며, 10년 후에는 1%의 누적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 후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

HPV 감염은 대부분의 CIN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CIN을 효과적으로 치료한 후, 2년이 지나면 HPV DNA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치료 후 재발된 CIN에서는 대부분 고위험군 HPV DNA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CIN의 치료 후 추적관찰의 전략에 있어서 HPV의 지속성(persistence) 여부의 모니터링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1. CIN 치료 후 HPV DNA의 소실율(clearance)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CIN 치료 후, 지속되거나 재발된 CIN이 없는 경우, HPV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uickshank 등의 연구에서, 치료 후 6개월이 지나 재발한 그룹에서는 29%의 환자에서 HPV 검사가 양성을 보였으나, CIN 재발이 없었던 환자들에서는 단지 12%에서만 HPV 검사가 양성을 보였다.

따라서 HPV 검사가 양성인 군과 음성인 군에서의 CIN 재발의 odd ratio=2.9를 보였다. Acladiou의 연구에서는 재발한 CIN 환자들 중 47%가 HPV 양성이고, 반면 완치된 환자들의 단지 6%에서만 HPV 양성이었다. Kjelberg 등은 원추절제술 후 35개월이 지나서 고위험 HPV 양성을 나타

낸 경우는, 108명 중 3명(2.7%)뿐이었고, HPV의 특정 type 별 소실율은 100%에 이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HPV 소실여부와 성공적인 CIN 치료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HPV DNA가 소실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Nobbenuis 등의 연구에서, 원추절제술 후 재발이 없이 3개월이 지난 환자들의 86%는 이미 HPV 검사결과가 음성이었으며, 24개월 후에는 99%에 이르렀다. 재발이 없는 환자에서 HPV는 평균적으로 8개월 후에 음성이 되었다(range: 4-18개월). HPV DNA의 소실율은 병변의 등급(severity)이 높을수록 낮아짐을 보였다(p=0.02).

## 3. CIN 치료 방법에 따른 HPV 소실율의 차이(cold-knife conization, LEEP/LLETZ, cryotherapy)

Elfgren 등은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서 수술 후 HPV가 지속되는 양상을 비교하였다. 원추절제술과 cryotherapy 후 6개월째, HPV DNA는 원추절제술의 경우에 있어서 더 낮게 발견되었으며(7% vs 36%), 불완전 절제 시에는 69%의 높은 HPV 지속율을 보였다.

## 4. 완전(complete) 대 불완전(incomplete) 절제 후 HPV 지속률의 차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CIN 치료 후 HPV 검사는 92~100%의 매우 높은 음성예측도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CIN3로 원추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양성 절제변연을 보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Jain 등은 양성 절제변연 및 양성 자궁내경부 소파(ECC: endocervical curettage) 결과를 보인 환자들을 분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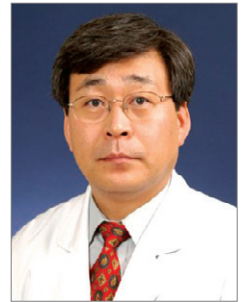
는데, 수술 후 고위험 HPV가 음성인 결과를 보인 환자들에서 자궁절제술 후 조직검사를 확인한 결과, 잔존하는 CIN은 없었다. 원추 절제술 후 HPV 검사의 음성예측도는 세포진보다 우수하여, Nobbenuis 등은 치료 6개월 후에 세포진과 HPV검사의 CIN 재발 진단의 음성예측도를 각각 93%, 98%로 보고하고 있다.

## 5. 지속성 혹은 재발성 CIN을 진단 시 HPV 검사의 민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포진과 비교할 때 HPV 검사는 적어도 세포진과 동일하거나, 세포진보다 더 좋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Chua 등은 CIN 치료 3~4개월 후, 세포진의 민감도는 50%에 불과하나, HPV 검사는 92%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CIN 치료 후 추적관찰중인 환자에서, HPV 검사를 추적검진의 방법으로 추천하는 데에는 아직 제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오랜 추적관찰을 통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에 근거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CIN 치료로 HPV는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치료 후 HPV 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는,



치료 후 재발 혹은 잔존 CIN은 거의 배제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원추절제술 시 양성 절제변연을 보인 환자의 추적검진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원추절제술 시 양성 절제변연을 보인 환자라 할지라도 HPV 검사가 음성인 경우에, 즉각적으로 re-conization이나 심지어는 자궁절제술을 할 필요 없이, 보존적으로 추적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세포진(Pap test)과 HPV 검사의 병용은 CIN 치료 이후 추적관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HPV 검사를 이 용함으로써 CIN 치료 이후, 과잉 혹은 과소 치료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CIN 치료 후 기본 추적 검사에 HPV검사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IN 치료 후 HPV가 소실되기까지는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재발하지 않은 환자의 약 10%에서도 CIN 치료 6개월 후에 HPV 검사가 여전히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 후 6개월의 시간 간격은 첫 번째 추적 HPV

DNA검사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Acladiou NN et al. Persistent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nd smoking increase risk of failure of treatment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Int J Cancer* 2002;98(3):435-439.
2. Chua KL et al. Human papillomavirus analysis as a prognostic marker following conization of the cervix uteri. *Gynecol Oncol* 1997;66(1):108-113.
3. Cruickshank ME et al. Persistent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following the successful treatment of high grade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Brit J Obstet Gyn* 2002; 109(5):579-581.
4. Elfgrén et al. Conization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is followed by disappearance of human papillomavirus deoxyribonucleic acid and a decline in serum and cervical mucus antibodies against human papillomavirus antigens. *Am J Obstet Gynecol* 1996;174(3): 937-942.
5. Jain S et al. Negative predictive value of human papillomavirus test following conization of the cervix uteri. *Gynecol Oncol* 2001;82(1): 177-180.
6. Kjellberg L et al. Regular disappearance of the human papillomavirus genome after conization of cervical dysplasia by carbon dioxide laser. *Am J Obstet Gynecol* 2000 ;183(5):1238-1242.
7. Nobbenhuis MA et al. Cytological regression and clearance of high-risk human papillomavirus in women with an abnormal cervical smear. *Lancet* 2001;358(9225):1 782-1783.

## 회원동정

2004. 10. Scotland Edinburgh에서 개최된 10차 국제 부인암학회 (IGCS)에서 전 회원의 투표로 김영탁 교수가 Asia-Oceania 대표로 Nominating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국내에서 IGCS Committee위원의 임명은 처음이다.

**신입회원 소개 :**

최상준(조선대학병원), 유수정(아세아병원), 여태홍(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장두영(일산백병원) 께서 새로운 학회 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

# 부인종양학 분야

1989년 황량한 풍납동 별관에 그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인 1200병상의 최첨단 병원과 의과대학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 역사는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원들의 일치된 단결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결과, 오늘의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가 있게 되었다. 지난 15년간의 역사를 간추려 보면, 1989년 6월 목정은 초대 주임 교수 및 과장을 중심으로 김암, 정동근, 김영탁 교수, 4명과 2명의 1년차 전공의, 서울대 3, 4년차 파견 전공의로 과를 시작하였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기존의 대학병원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전 의국원이 지혜와 노력을 모아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기였는데, 특히 산부인과학중 부인종양학에 집중, 전문화를 함으로써 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개원 반년 만에 산부인과 전 병동을 가동하게 되었고, 교수들이 교대로 당직을 서가며 전공의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던 1990년 여름, 병원이 홍수로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해를 맞게 되었다. 주차장의 차들과 수십억 원대의 방사선과 핵의학 시설들, 엄청난 의무기록들이 수장되었고 물에 고립된 병원에서 1000여명의 환자들을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이송하는 대피작전이 벌어졌다. 이후 교수들은 주변 병원들에 흩어진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회진을 돌았으며, 전 교수, 전공의, 간호사, 일반직원 모두 진흙을 뒤집어쓰며 산부인과 장비 및 시설들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엄청난 시련에 잠시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듬해부터 전공의 수도 늘어나고 환자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재도약을 할 수 있었다.

1992년 남주현 교수가 새로 부임하였고, 교수들의 학술활동도 점차 활발해졌다. 1993년 본교실 주최의 첫 연수강좌가 '부인암의 조기진단'이라는 주제로 Yale 대학의 Schwartz 교수 등을 초청하여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에서의 종양표지물질 및 flow cytometry를 이용한 암 조직의 DNA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3년 목정은 과장이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회에서 난소의 경계성 종양에 대한 숙제보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교수들이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해외 학회에서의 발표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1994년은 병원 동관 증축에 따른 병원의 초대형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산부인과 병동이 120 병상으로 증설되었고 교수진도 점차 충원되었다. 1996년 목정은 교수가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 학회 회장으로 김영탁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인종양학 분야는 대외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1995년 김용만 교수 그리고 1997년 김종혁 교수가 발령을 받게 되어 부인종양학 분과는 총 5명의 교수로 늘어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1998년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일본 Keio 대학 산부인과 Nozawa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그 자리에서 Keio 대학 산부인과와 자매결연을 맺어 두 과간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때 정리 발표한 바에 의

하면 1989년 개원 후 1998년까지 만 10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750건의 자궁경부암 수술을 시행하였고 300건의 난소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간 150건 이상의 자궁경부암 수술을 시행함으로 국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김영탁 교수가 대한 부인종양 콜포스코피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2001년 도에도 동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 일본산부인과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 부인암학회에서 초청 연자로 유창한 영어실력을 과시하였다.

1998년 남주현 교수가 2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인과 복강경 수술에 있어 최고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은 빠르게 개복술을 대체하여 2004년에는 전체 자궁절제술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부터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 수술에도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였는데, 그 술기는 남주현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시켰으며 그 간 2회에 걸쳐 미국의 Paul Morrow 교수, 대만의 C-H Lee 교수 등을 초청하여 복강경 부인암 수



술에 관한 live surgery & 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국내 타 대학은 물론 미국, 대만, 인도, 중국 등 외국의 교수들도 참관하며 그 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현재까지 북강경하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180여건이 시행되었으며 개복술과 비교해 재발 및 생존율에 있어서 동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남주현 교수가 그 성적을 미국 부인암 학회 및 Gynecologic Oncology에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1996년 목정은 교수가 국제 부인암 학회 제9차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그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회 준비를 위해 본 과 교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 10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국제 부인암 학회에서 목정은 교수는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으로, 남주현 교수는 재정위원장으로, 김영탁 교수는 사무총장으로 대회의 운영 및 진행을 수행하였는데, 많은 외국교수들과 의사들, 그리고 국내의사들이 참석하여, 국내에서 열린 부인종양학 분야의 학술대회 중 가장 권위 있고 성공적인 학술대회로 남게 되었다. 이 때 참석했던 외국 교수들과의 교류로 본 과는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목정은 교수는 대한 암학회 부회장, 대한 비뇨부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본 교실에서도 비뇨부인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TOT 기기를 직접 개발한 독일의 F. Armin 교수를 초청, live surgery 및 workshop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TOT 등 많은 요실금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김용만 교수는 뛰어난 임상 업적과 더불어 기초 연구로서 중앙면역학, 특히 국내 산부인과에서는 최초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의 clinical trial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 부인종양 콜포스코피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2004년 일본산부인과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김종혁 교수 또한, 많은 진료 및 연구 업적과 더불어 전공의 및 간호사, 그 외 의료 보조인력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본 교실이 외형에만 치중하지 않고 구성원 내의 가족적인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해외 연수 활동으로는 김영탁 교수가 1994년 미국 Johns Hopkins 대학병원에서 부인암의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연수를 하였고, 1996년 목정은 과장은 미국 MD Anderson 암 센터에서 단기 연수하였으며, 1997년 남주현 교수가 미국 Yale 대학 및 Harvard 대학에서 단기 연수하였다. 또한, 김용만 교수는 1997년 미국 MD Anderson 암 센터에서 1년간 연수하였고, 김종혁 교수는 2000년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1년간 연수하였다.

2002년 서대식 교수, 2003년 김대연 교수가 발령을 받으면서 2004년 현재 부인종양학 분과는 교수 7명, 연구교수 1명, 임상강사 5명, 연구간호사 2명, 전임 연구원 2명으로 단일 병원으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가 되었으며, 진료 실적 또한 국내 최고를 자부하고 있다. 4개의 부인과 전용 수술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15건 이상의 부인과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남주현 교수에 의하여 부인과 북강경 수술 연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북강경 술기에 익숙지 않은 개원의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월1회 3일간의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을 참관하기 원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수술장을 개방하여 전국의 지역의사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매주 시행하고 있는 tumor board는 본 교실 및 병리과, 치료방사선과 의사가 환자

리에 모여 매회 10건 이상의 부인암 환자에 대한 토론을 하고 향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공의 및 임상강사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가 되며, 젊은 교수들에게도 치료 방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 교실의 자랑거리이다.

또한 임상강사들에게 3개월간의 외과 파견 기회를 주어 외과의로서의 기초 술기 및 장 수술의 기본을 익히게 하고 있으며, 부속 아산생명과학 연구소에서 분자생물학의 기초를 배우도록 도와 주어 임상과 연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fellow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도 커지고 있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본 교실은 술 못 먹는 사람은 일도 못한다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이어서 다른 병원과의 대결에서도 아직 저분 적이 없고, 과음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근무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2004년 가을부터 산과학 전공의 김암 교수가 3대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남주현 교수는 대한 산부인과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본 교실은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인 새 건물이 완공되면 산부인과 전용 병상이 180개, 부인과 전용 수술실이 6개로 증가하게 되어 그 임상적 외형은 더 커지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개원 초부터 풍납동 식구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는 풍납동 정신, 아마도 맨손에서 시작하여 최고를 이룬 그리고 흉수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갔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을 명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는 설립자 아산의 정신을 지켜 나간다면, 본 교실은 의사나 환자에게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해외연수기

# 독일 DKFZ 연수를 마치고...



김찬주

가톨릭 의대 산부인과 조교수, 성바오로병원



필자는 2002년 10월 말부터 2004년 4월말까지 1년 반 동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DKFZ (Deutsches Krebsforschungszentrum,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독일 암센터)에 Guest Scientist 자격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2년 도착 당시 황금빛 낙엽이 거리를 온통 뒤덮고 있던 Heidelberg는 사진에서처럼 산 위의 고색창연한 성이 단풍 속에 폭 파묻혀 있으면서, 오래된 구시가지 등과 어울려 무척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시내 중심을 흐르는 니카강 북쪽에 있는 Neuenheim Feld라는 곳은 독일 Baden-Wurttemberg주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의욕적으로 건설한 최첨단 과학기술 단지로 Heidelberg대학과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두정부 전문 병원(Kopf Klinik, Head and Neck clinic), 암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이라는 1978년에 세워진 국제적인 research organisation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곳 DKFZ는 1960년대 외과 의사 2분의 기증으로 건설된 이후 주 정부와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 Cell Biology and Tumor Biology, Structural and Functional Genomics, Cancer risk factors, Tumor Immunology, Innovative diagnostics and Therapy, Infection and Cancer 등의 6개의 큰 Research Program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곳으로, 세계적인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 연구소에서 암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암센터의 기본 설립이념인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있었던 part는 Infection and Cancer Programm의 Genome Modification and Carcinogenesis division의 Professor Lutz Gissmann으로, HPV Therapeutic Vaccination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은 Papillomavirus의 발견자로서 대부(大父)로 알려진 zur Hausen H가 전체 암센터 연구소장직을 2003년에 은퇴한 뒤에도, Division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umorviruses에 소속되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Professor Lutz 덕분에 연구소 근처에 작은 Guest House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이들도 바로 집 앞의 연구소 부설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퇴근 거리에 비하면 Heidelberg에서의 도보 10분 거리는 무척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

었습니다만,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동물실험 Projec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해가 긴 여름에도 별을 보고 퇴근하는 하루가 짧은 정도의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매년 암 통계 책자가 만들어지는데, 1998년도 Baden-Wurttemberg주 보고에 의하면 1위의 암은 유방암(25.9%)이며, 자궁체부암 (5.7%), 난소암(4.2%), 자궁경부암(3.9%)의 순으로 발생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여성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의 발생 순위는 떨어지지만, 자궁경부전암 병변인 CIN등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며,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적 차원의 검진과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소는 영어로 모든 것이 통하기에 정말 별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라든가 빵집 등에서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소에만 주로 있어 독일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지만, 우연히 몇 번 들린 이 곳 병원들은 의료 체계의 차이 때문에 무척 다르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  
서 국가적 지원이 앰블란스 이송, 안경, 보  
청, 재활용 신발 등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었  
지만, 최근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때문에  
2004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제도 등으로,  
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  
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국민들은  
사보험체제로 갈 수 있어 운영되는 시내의  
사보험 병원들은 무척 시설과 운영이 현대  
적이었습니다.

이 곳 병원들의 특징은 작지만, 특성 있  
는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Kopf Klinik  
(Head and Neck clinic)에는 신경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모여 있는 곳으  
로 Baden-Wurttemberg주 뿐만 아니라  
근처의 다른 주에서도 환자가 오며, 연구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아 백혈  
병 등의 치료로 유명한 Kinder Klinik,  
Heidelberg 시내의 여성병원인 “Klinik  
Sankt Elisabeth” 등이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 초기에 언어 장애, 문화적 차



▶ 실험실 파티장면

이에서 오는 불편함도 바쁜 실험 사이에서  
는 녹듯이 사라져갔으며, 지하 동물실에서  
의 쥐와의 시간, vaccination뒤의 면역학

적 연구의 고단함 등도 지금은 어느새 추  
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Mainz에  
있는 한국 성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 여  
러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외국 생활의 어  
려움을 넘길 수 있었기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험이 있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아이들  
과 함께 Autobahn(고속도로)을 타고 갔었  
던 스위스의 Lugano 호수와 이태리의  
Milano, 프랑스 파리, 룩셈베르그, 오스트  
리아의 잘스부르크 등은 무척 인상적이었  
습니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에 훌쩍 키가  
커 버린 딸을 보며, 독일에서의 연수 기간  
에 대하여 많은 추억들을 다시 한 번 기억  
해봅니다. 특히 해가 긴 여름날, 연구실에  
서의 저녁놀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렇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애써  
주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남아서 병원을  
지켜 준 후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  
으로도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編輯後記

세밑에서 돌아보는 2004년 甲申年은 暗鬱한 醫療環境,  
신입 전공의 未達事態 등 산부인과 전문의인 우리 大韓婦  
人腫瘍\*콜포스코피學會 회원들에게는 酷毒한 한해였습니  
다. 그러나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學術活動은 풍성하였고  
부분적인 世界化을 이룩한 한 해로 생각되며, 이 소식만으  
로도 紙面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선 4월 23일 濟州에서 “大韓婦人腫瘍·콜포스코피學  
會 春啓學術大會”와 11월 12일의 “大韓婦人腫瘍·콜포스  
코피學會 秋啓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海外學會로는 2월 초 미국 San Diego에서 개최된  
“35th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SGO)”에  
약 30 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고, 10월 초에 영국  
Edinburgh에서 개최된 “10th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에 약 60 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연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춘계학회 전날에 제주에서 개최한 “제 3차 韓日 婦  
人癌 共同學術大會”도 또 다른 성공적 國際 學術活動이었  
습니다.

작년에 결성된 ‘大韓婦人癌研究會 (KGOG)’는 刻苦의  
노력 끝에 드디어 多機關 研究 protocol인 KGOG-1001  
을 완성하여 임상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남궁성은 교수님이 임기를  
마치시었고, 새 회장으로 강순범 교수님이 就任하셨습니다.  
새해 乙酉年은 닭의 해이고, 닭은 生産的인 動物입니  
다. 새해에는 새 회장님을 中心으로 生産的인 學會가 되기를  
祈願합니다.

회원 여러분 乙酉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소식지 소위원장 유 희 석 올림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김경태(한양의대)	이규완(고려의대)	조영태(경북의대)	남주현(울산의대)	박상윤(국립암센터)	배덕수(성균관의대)	서호석(고려의대)	배석년(가톨릭의대)	배동한(순천향의대)	윤만수(부산의대)	최호선(전남의대)
김원규(고신의대)	김병기(성균관의대)	김태진(성균관의대)	김문홍(원자력의학원)	고재환(인제의대)	김경진(건양의대)	안웅식(가톨릭의대)	고민환(영남의대)	김기태(인제의대)	김기형(부산의대)	김석모(전남의대)
남주현(울산의대)	김승철(이화의대)	박노현(서울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김용범(서울의대)	김진우(가톨릭의대)	남계현(순천향의대)	김성훈(연세의대)	김성한(고신의대)	김원규(고신의대)	김수녕(건국의대)
박상윤(국립암센터)	김영탁(울산의대)	박진완(단국의대)	김재원(서울의대)	김현호(동아의대)	김학순(충북의대)	송용상(서울의대)	손우석(울산의대)	노홍태(충남의대)	김홍배(한림의대)	김용만(울산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김영태(연세의대)	이동현(강원의대)	김중혁(울산의대)	남상륜(충남의대)	박찬용(가천의대)	이선경(경희의대)	유기성(가톨릭의대)	박일수(경북의대)	이두진(영남의대)	김재훈(연세의대)
서호석(고려의대)	김홍곤(원광의대)	차순도(계명의대)	박영한(한림의대)	심재륜(동국의대)	오병찬(전북의대)	이재관(고려의대)	유상영(원자력의학원)	이용우(한림의대)	이의돈(원자력의학원)	유희석(아주의대)
송용상(서울의대)	박중섭(가톨릭의대)	황인택(울지의대)	송은섭(인하의대)	이기현(성균관의대)	허주엽(경희의대)	장기홍(아주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조삼현(한양의대)	이찬(포천중문의대)	이정필(아주의대)
안웅식(가톨릭의대)	박충학(단국의대)		안태규(조선의대)	이종학(경상외대)			유상영(원자력의학원)	차동수(연세의대)	전혜원(서울의대)	이철민(인제의대)
차순도(계명의대)	유희석(아주의대)		이종민(가천의대)	최석철(원자력의학원)			한세준(조선의대)	최승도(순천향의대)	이철민(서울의대)	이철민(인제의대)
최호선(전남의대)	이낙우(고려의대)		조치흠(계명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최승도(순천향의대)	이찬(포천중문의대)	이정필(아주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이윤순(경북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최승도(순천향의대)	이찬(포천중문의대)	이정필(아주의대)
허주엽(경희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최승도(순천향의대)	이찬(포천중문의대)	이정필(아주의대)

세무운영위원회
김재훈(연세의대)
김병기(성균관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김승철(이화의대)
김영탁(울산의대)
김영태(연세의대)
김용만(울산의대)
김재원(서울의대)
박노현(서울의대)
유상영(원자력의학원)
유희석(아주의대)
이기현(성균관의대)
이종민(가천의대)
이재관(고려의대)
조치흠(계명의대)

이 사
강순범(서울의대) 남상륜(충남의대) 박충학(단국의대) 윤만수(부산의대) 전중수(성균관의대)
강재성(고려의대) 남주현(울산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이경희(원자력의학원) 조삼현(한양의대)
구병삼(서울에이엘의원) 노홍태(충남의대) 배도환(중앙의대) 이규완(고려의대) 조영태(경북의대)
김경태(한양의대) 목정은(울산의대) 배동한(순천향의대) 이선경(경희의대) 차순도(계명의대)
김수녕(건국의대) 문형(한양의대) 배석년(가톨릭의대) 이승호(영남의대) 최호선(전남의대)
김승조(포천중문의대) 박상윤(국립암센터) 서영욱(부산일신병원) 이응수(인제의대) 한구택(가톨릭의대)
김승철(이화의대) 박은동(고신의대) 서호석(고려의대) 이의돈(원자력의학원) 한세준(조선의대)
김재욱(연세의대) 박인서(성균관의대) 송용상(서울의대) 이제호(성균관의대) 허민(중앙의대)
김종덕(전북의대) 박일수(경북의대) 심재욱(성균관의대) 이진용(울지의대) 허주엽(경희의대)
김학순(충북의대) 박중섭(가톨릭의대) 안웅식(가톨릭의대) 이태성(대구가톨릭의대) 황윤영(한양의대)
김현찬(인제의대) 박종택(성균관의대) 안재영(포천중문의대) 이현영(청화병원)
김현호(동아의대) 박찬규(연세의대) 오병찬(전북의대) 이효표(서울의대)
남궁성은(가톨릭의대) 박찬용(가천의대) 유희석(아주의대) 장윤석(마리아병원)

소식지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
유희석(아주의대)	김수녕(건국의대)
이정필(아주의대)	김석모(전남의대)
이철민(인제의대)	김용만(울산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김재훈(연세의대)

## 2005년 주요 학회 일정

학회날짜	학회명	개최지	초록마감
3. 19~23	36th SGO Annual Meeting	Miami	마감됨
4. 2~5	57th JSOG	Kyoto	마감됨
4. 16~20	96th AACR Annual Meeting	Anaheim	마감됨
4. 22	1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심포지움	서울	해당없음
4. 29~5.6	22nd HPV Meeting	Vancouver	1월 18일
5. 7~11	53rd ACOG Annual Clinical Meeting	San Francisco	마감됨
5. 13~14	91차 대한산부인과 학술대회	제주	3월 15일
5. 13~17	41th ASCO Annual Meeting	Orlando	마감됨
5. 19~22	4th Int'l Conference on Cervical Cancer	Houston	해당없음
6. 5~9	12th IFCCP	Cancu' n	2월 15일
6. 9~10	31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서울	
7. 8~10	GOG Semi-Annual Meeting	Baltimore	해당없음
7. 21~23	38th 日本婦人科腫瘍學會	Wakayama	해당없음
8. 9~12	30th IUGA	Copenhagen	3월 1일
9. 7~9	18th APCC	서울	5월 31일
9. 25~29	14th ESGO	Istanbul	5월 1일
10. 1~5	19th AOCOG	서울	4월 30일
10. 23~26	13th ISSTD	Manila	not announced
10. 30~11. 3	13th ECCO	Paris	5월 25일
11. 9~12	34th AAGL	Chicago	not announced
11. 17~19	Satellite meeting of IGCS in Asia	Kyoto	해당없음
11. 25	20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제주	
12. 8~9	39th 日本婦人科腫瘍學會	동경	

## 2006년 주요 학회 일정

학회날짜	학회명	개최지
1. 20~22	GOG Semi-Annual Meeting	San Diego
3. 4~8	37th SGO Annual Meeting	New Orleans
3. 13~17	ASCCP Biennial Meeting	Las Vegas
4. 1~5	97th AACR Annual Meeting	Washington
4. 21 (잠정)	2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미정
6. 3~6	42nd ASCO Annual Meeting	Atlanta
7. 8~12	UICC World Cancer Congress 2006	Washington
7. 20~22	40th 日本婦人科腫瘍學會	Gifu
7. 21~23	GOG Semi-Annual Meeting	Washington
9. 29~10.3	31st ESMO Congress	Istanbul
	11st IGCS	Santa Monica
11. 17 (잠정)	12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심포지움	서울



# 회무보고

## 2004년 제 11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4년 11월 29일 6시30분
- 장 소 : 조선히텔 Conference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병기,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이종민, 조치흠, 이택상, 김정숙, 서호석, 김미경

1. 제 10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무수정 통과
2. 초청강연
  - 1) '재발성 자궁경부암의 2차 항암치료요법'  
연자 : 서호석 교수님
  - 2) Tivolone & Breast Ca 연자: Rodney John BABER  
후원 : 한국 오가는
  - 3) '부인종양과 영양' 연자: 김미경 박사  
→ 다음 회의때 암환자와 대조군간의 Nutritional status 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 예정
3. 보고사항
  - 1) 신입 세부운영위원 소개 (고려대 이재관 교수님)
  - 2) KGOG-1001 참여기관(18개) IRB 심사현황  
→ 승인(2) 보완(2)
  - 3) Clinical relevance of human papilloma virus load evaluation  
→ 다음 회의때 서울아산병원 HPV HC system 데이터 보고 및 임상시험 모형에 대한 발표 예정
4. 토의 사항
  - 1) KGOG 프로토콜 수정에 관한 건 (KGOG-2001, KGOG-3001)  
→ KGOG-3001 IIT형태로 임상시험 진행 (젼자: D-code 적용하여)
  - 2) KGOG-1001 프로토콜 violation의 실례→발생시 각 위원에게 메일로 보고

## 2004년 제 12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오후 7시

- 장 소 : 이마스시
  - 참석자 : 강순범,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박노현, 유희석, 이기현, 이종민, 이재관, 이택상
1. 제 11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무수정 통과
  2. 내용
    - 1) KGOG 1001 프로토콜 수정: 다기관 '변경내용 재심사' 자료 발송함.
    - 2) 신입 세부운영위 소개: 고려대 이재관 교수님
    - 3) KGOG 2001 신평계약 임상후원
    - 4) Next GOG Semi-Annual Meeting 참가논의

## 2004년 제 4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오후 7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西廳
- 참석자 : 강순범, 김재욱, 김승조, 남주현, 목정은, 문 형, 박상운, 박찬규, 배덕수, 배동한, 배석년, 서호석, 윤만수, 이승호, 이응수, 이준모, 이효표, 조영래, 최호선, 김재원 (이상 20명, 가나다순)

1. 상견례: 회장님 인사말씀 및 새로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소개.
2. 2004년 제 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됨.
3. 보고사항
  - 1) 2004년 제 10차 추계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개최함.  
날짜 : 2004년 11월 12일 (금)  
장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등록인원 : 177명
  - 2) 학회기금 및 운영비를 12월 3일에 인수인계함.
  - 3) 제 4차 한일부인종양학동회의  
날짜: 2005년 7월 20일 (수)  
장소: Wakayama 시 (和歌山市)  
주제: Surgery for gynecologic malignancies
4. 토의사항
  - 1) 2005년 제 11차 심포지움 개최 관련사항 정해짐.  
날짜: 2005년 4월 22일 (금)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2) 2005년 제 11차 심포지움 案: 추후 학술위원회에서 논의 키로 함.

- 3) 차기 학회 개최일, 장소에 관한 건  
2005년 20차 추계학술대회: 11월 25일(금), 제주에서 개최  
제 5차 일한부인종양합동회의(2006년): 추후 논의  
2006년 21차 춘계학술대회 및 2006년 12차 추계심포지움:  
추후 논의
- 4)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20년사 발간을 추진키로  
승인함.
- 5) 교과서 개정의 건: 산부인과학회 교과서 발간 후에 형식  
을 달리해 추진
- 6)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지에 관한 건:  
학회지 명칭 변경에 대해 자료 조사후 재논의키로 함.  
각 상임이사는 연간 3편 이상의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  
키로 함.  
기타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력키로 함.
- 7) 부인종양연구회(KGOG)에 관한 건: 연구위원회를 회장  
산하 기구로 두고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여토록 함. 연구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함.

Neoplasm :김병기 교수님

▶ Prevention of polyneuritis induced by taxol :  
조치흠 교수님

▶ Safety and efficacy of capecitabine(Xeloda) in  
patients with recurrent and refractory ovarian  
carcinoma :김용만 교수님

#### 4) 새 임상연구

▶ Studies on HPV viral load : 김영탁 교수님

▶ venoferum에 대한 임상연구 :김영태 교수님

▶ 부인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Nutritional  
Epidemiology 에 관한 연구 : 김승철 교수님, 김미경  
박사님

#### 5) 기타

▶ 희귀질환 등록프로그램→다음 회의때 김병기 교수님  
risk목록 준비 및 결정

▶ APCC Topic 및 연자 소개

#### 6)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프로토콜

① 재발성 및 난치성 난소암 환자에서 Xeloda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김용만 교수

② Phase IV Randomized Study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With or Without Adjuvant  
Intravenous Iron Supplementation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 김영태 교수

③ Platinum-resistant GTN 환자에서 Weekly Taxol  
and Etoposide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2상 임상  
연구 :김병기 교수

④ HPV viral load와 관련된 임상연구 프로토콜 : 김영탁  
교수

⑤ 부인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Nutritional  
Epidemiology 에 관한 연구  
:김승철 교수, 김재훈 교수, 김미경 박사

⑥ 이기현, 이종민 교수님 임상연구 자료 준비하여 발표하  
기로 함.

## 2005년 제 1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1월 4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히텔 Conference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박병주,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이재관, 이종민, 이택상, 김정숙

1. KGOG 직재개편 소개
2. 제 12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무수정 통과
3. 보고사항
  - 1) KGOG 1001 다기관 임상시험 진행현황(첨부자료2)
  - 2) 신입 세부운영위원 소개 : 원자력의학원 유상영 박사님
4. 토의사항
  - 1) KGOG 2001(첨부자료3)
    - ▶ Stage IV or recurrent endometrial cancer 포함  
여부→포함 않기로 함
    - ▶ 허가임상
  - 2) KGOG 3001(첨부자료4)
    - ▶ IIT vs KGOG 의뢰→IIT형태로 진행
    - ▶ (주)릴리 : 보험급여 세부인정에 관한 작업진행
    - ▶ 2005년6월 or 2006년1월(첨부자료5)
  - 3) 논의된 임상연구 Review
    - ▶ Phase II Study of Weekly Taxol and Etoposide  
in Platinum-resistant Gestational Trophoblastic

## 20년사편찬위원회 제 1차 회의

- 일 시 : 2005년 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석자 : 김승조, 강순범, 이규완, 이승호, 남주현, 김문홍,  
김재원, 김종혁, 박영한, 송은섭, 안태규, 이종민,  
조치흠, 허수영 (14명)

1. 회장이 발간 취지를 설명함.
2. 일정을 논의함.  
간사/사무총장등 실무참여자를 선정한 후 학회사 구성 및



자료 수집을 논의하기로 하다.

[ 편찬위 활동 일정 ]

- 1월 - 1차 모임, 업무 배분
    - 20년사 작업 공지, 자료 제출의뢰: 소식지
  - 2월 - 책의 제목, 구성, 집필자, 작업공정 협의
    - 자료 수집을 위해 각 대학, 기관별 대표자 선정 및 협조요청
    - 학회 회원 및 각 교실/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 3,4월 - 원로, 중진 회원들에게 일화 및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
    - 20년사 관련 자료수집 및 포함사항에 대한 원로, 중진들과의 대담, 녹취
  - 5월 - 목차조정, DB 작업, 작업공정 조정 9. 모임 자료 윤독
  - 6월 - 집필형식 조정, CD 제작 포함
  - 7,8월 - 1차 교정
    - 2차 교정
  - 9,10월 - 보완 및 최종 교정
    - 최종 점검
3. 학회사 기술 범위/내용을 논의함.  
대한의학회 자료상 학회 창립연도가 1984년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전 태동기의 활동상도 기술하기로 함. 학회사 말미에 학회의 향후 나아갈 바를 기술기로 함.
4. 자료수집에 대해 논의함.  
각 지역별, 대학/기관별로 책임자를 선정해 자료를 모으기로 함.

[ 조사대상 자료 ]

대한산부인과학회사, 각 대학 교실사, 연보 자료 및 타 학회 자료  
본 학술대회지, 학회지, 정기총회지, 학회원들이 발간한 서적, 기념논문집, 각 회원의 외국학회/외국 journal 발표 자료, 국립도서관 및 학술진흥재단 자료

[ 현 결손자료 ]

학술대회지 : 1, 2, 3, 5, 7차  
학회지 : 1991년 전체, 1992년 전체, 1994년 6월호  
정기총회 자료 : 1996년(11차), 1992년(7차) 이전 자료

- 5. 제작비용 조달을 논의함.  
300쪽 내외, 2천부 내외 제작→각 명예회장단, 현 임원진 및 이사에게 찬조금을 기부받기로 함.  
조만간 원로 모임을 갖기로 함.

[ 편찬자문위원 및 후원회원 구성 ]

편찬자문위원 : (명예회장단)  
이태호, 김승조, 박찬규, 이효표, 목정은, 문형, 김재욱, 남궁성은  
부회장 : 박인서, 전중수, 박종택, 이경희, 이익돈, 박일수, 심재욱, 이규완, 이승호  
편찬후원회원 : 현 임원진 (이사 포함), 명예회장, 전임 임원진 및 산부학회 원로 회원 등

## 2005년 제 1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예당
- 참석자 : 강순범, 이규완,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흥곤, 박충학, 유희석, 이윤순, 이낙우, 김재원 (11명)

1. 2004년 제 2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제 10차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개최함  
날짜 : 2004년 11월 12일 (금)  
장소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등록인원 : 177명
  - 2) 제 11차 심포지움 개최 예정  
날짜 : 2005년 4월 22일 (금)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3) 제 4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개최 예정  
날짜 : 2005년 7월 20일 (수)  
장소 : Wakayama 시 (和歌山市)  
주제: Surgery for gynecologic malignancies
    - ① Laparoscopic surgery,
    - ② Surgery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 ③ Nerve-sparing radical hysterectomy
  - 4) 20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날짜 : 2005년 11월 25일 (금)  
장소 : 제주
  - 5) 2006년 21차 학술대회, 제 5차 일한부인종양합동회의 및 2006년 12차 심포지움 개최일 미정임을 보고함.
3. 토의사항
  - 1) 11차 춘계심포지움 연제, 연자 선정의 건: Part I, II, III 로 나눠 진행
  - 2) 학술상 시상 시기: 통상대로 11월 학술대회에서 시상기로 함.
  - 3) 제 4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연제 및 국내 연자 선정의 건: 추가 논의기로 함.
  - 4) 20차 학술대회 외국인자 초청의 건: 계속 추진기로 함.